



### 다양한 여름캠프, 어디로 갈까?

부다피아, 파라미터 국제캠프 등 다양  
직접 참여로 학습·정서함양에 도움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느 캠프에 갈까? 그동안의 청소년 캠프들이 보여주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직접 참여해 재미를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윤관) 주관으로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담산 관음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크기훈련, 적멸보궁 참배, 답십샘과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윤희)는 7월 22일~25일까지 3박 4일간 고성 알프스리조트에서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찬 세상!'이란 주제로 제6회 파라미터 청소년 국제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국제캠프는

경기도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우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등이 참석해 골프, 잔디볼, 리프트 타기, 수영, 하이킹 등 야외 활동과 건봉사 참배, 땀흘리기 등 신생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청소년교회연합회(회장 현성)도 7월 28일~30일까지 목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03 청소년 리더십아카데미 캠프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해명)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신내연수원에서 'VIVA 연합캠프'를, 우리는 선우(공동대부 남지심)는 8월 8일~11일 강화도 일대에서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역사의 섬 강화도 역사체험' 행사를 펼친다. 한편 송광사, 마곡사, 관음사, 소림사, 구룡사, 봉은사 등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운영하는 신행정보센터(http://info.buddhism.org)에 접속하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수련법회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신행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단체	일정	캠프이름	문의전화
현대불교신문사	7월 22일~24일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02)738-7860
파라미터청소년협회	7월 22일~25일	제6회 파라미터 청소년 국제 캠프	(02)723-6165
비로자나청소년협회	7월 27일~30일	VIVA 연합캠프	(02)942-0635
청소년교회연합회	7월 28일~30일	2003 청소년 리더십아카데미 캠프	(02)735-8165
대흥사	7월 29일~31일	어린이 숲속마을	(061)534-8877
대한불교진각종	1차: 7월 23~25일 2차: 7월 30~8월 1일	진기 57년 여름 자성학교 연합 캠프	(02)913-0751
양정청소년수련관	7월 29일~31일	제4회 영성성장 캠프	(051)868-0750
우리는 선우	8월 8일~11일	강화도 역사체험	(02)2278-8672
디지털달린상담실	8월 15~17일	기자로 떠나는 물놀이 여행	(043)257-0807

  

단체	일정	문의전화	단체	일정	문의전화
침암사	7월 19일~20일	(054)437-0038	봉은사	7월 25일~27일	(02)3218-4815
진관사	7월 19일~21일	(02)359-8410	범어사	7월 25일~27일	(051)508-3122
신흥사(화성)	7월 23일~25일	(031)357-2695	관음사	7월 25일~27일	(064)722-2829
선덕사	7월 23일~25일	(062)263-4660	송광사	8월 1일~3일	(061)755-0107
소림사	7월 24일~26일	(02)394-2145	마곡사	8월 1일~3일	(041)841-6221
구룡사	7월 25일~27일	(02)575-7766	통도사	8월 7일~9일	(055)382-7182

###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화·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 '젊은 불자들의 화이팅' 지난 6월 30일 동국대 불교학생회원이 학생회관 법당에서 대불련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훈, 김진호, 남궁현 회장, 류인선 부회장, 고원일, 이동운 부부)

탐방: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 ‘사는게 싱겁니?’ 동불회가 있잖아

쉽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차별회 열어  
‘목탁 배우기’ 등 통해  
참여 범위 넓혀

“사는 게 싱겁니?” 동국대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실. 옛된 얼굴의 동자승 포스터 문구가 시선을 잡아당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올해 초 침체일로에 있는 전국 지회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안한 홍보물이다. “어서 오세요. 동국인들의 사랑방입니다. 아서 앉으세요. 찬한 잔 드셔야죠.” 올해부터 ‘차 별회’를 시작했다. 류인선 부회장(행정학과·00학번)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재밌고 유익한 법회 방법은 없을까 고민 꽤나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차별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법우들이 스스로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신앙상담도 이뤄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의 특징은 행사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모든 행사는 학생회원들만의 잔치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지난해 9~10월 열린 ‘동국인 불교 느끼기’ 행사가 대표적인 예. 동대 불교학생회는 세 차례에 걸쳐 ‘목탁배우기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만행회’의 저자인 현각 스님 초청 강연회, 동·하계 수련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다. 이번만은 아니다. 70년대부터는 선·

후배간의 교류를 위한 ‘동문 초청 등 만들기’ 행사를 매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62년 창립이후 줄곧 흥문을 잇는 끈처럼 작용, 오늘날 ‘동불인(東佛人)’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신생활 동도 열심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면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성진 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병행한다. 아침·저녁에는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을 모시고 있다. 남궁 현(전자과·98학번) 불교학생회장은 “향년세가 가지 않는 동아리 방을 만들기 위한 생활 신행운동을 벌여왔다”며 “올 하반기부터 경전 공부모임도 가져 항상 정진하는 청년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동대불교학생회의 자랑스런 동문들

지난 62년 불교연구부 출범한 동대 불교학생회는 44년간 배출한 동문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역대 대불련 회장 40명 가운데 14명이 동대 불교학생회에서 나왔다. 이들 동문 중 학계·불교



◊이응부 씨 ◊조용길 씨 ◊이상기 씨 ◊성기태 씨

### 44년간 배출한 동문만 3천여명

### 성기태 총주대 총장 등 곳곳서 활약

계·경제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응부(전산과·64학번) 동문은 문화관광부 총무관을 거쳐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으로, 7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조용길(불교학과·67학번) 동문은 모교 불교학과 교수로, 이상기(경제학과·69학번) 동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의 IT 계열 사인 오도예비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1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성기태(토목학과·70학번) 동문은 국립 총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 대불련 총동문화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사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총로구 평창동 45번지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a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편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시이의 영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정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시이의 영혼을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양토저적재산'입니다.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충남 논산시 만유면 소룡리 2번50)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약품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인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08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